

모트렉스 자회사 '모트렉스이브이' 전기차 충전기 3종 출시

- ▶ '휴대형부터 주거용 및 공용까지' 전기차 충전기 풀 라인업 출시
- ▶ ChargeREX-휴대형, ChargeREX-홈, ChargeREX-과금형 충전기 출시

<2023-05-17> IVI 전문기업 모트렉스(대표이사 이형환, 118990)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모트렉스이브이'에서 개발한 전기차 충전기를 신규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 전문 업체인 모트렉스이브이(대표 오재연)는 최근 3종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KC인증을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했으며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충전기는 ▲ChargeREX-휴대형 ▲ChargeREX-홈 ▲ChargeREX-과금형 등 3종의 충전기로 각각 비상용, 주거용 및 상업용 충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화 되어있다. 특히, 전기차 소유자가 차량을 충전하는데 있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한다. 충전 내용을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화재에 강한 난연소재를 사용해 사용자의 안전성도 강화했다.

모트렉스이브이는 금번 3종 충전기 출시를 통해 '휴대형부터 주거용 및 공용까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전기차 소유주의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트렉스이브이 오재연 대표는 "전기차충전기의 필요조건으로 사용편의성, 과열 과부하로 부터의 차량을 보호하는 안전성, 온·오프라인으로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성, 화재에 강한 난연소재의 사용과 가전제품과 같은 아름다운 디자인 등을 꼽는다"라며 "향후 출시할 자사의 충전기들은 모두 이 조건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트렉스는 현재 미래 신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를 낙점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맡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과의 MOU를 비롯하여 완성차 업체와의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충전 시장이 성장할 것을 염두해두고 2년 전부터 선행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트렉스 관계자는 "공간적인 개념의 비즈니스가 아닌 전기차와 연동될 수 있는 전용 충전기에 대한 선행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충전기 세부 기능 소개]

ChargeREX-휴대형은 비상용 혹은 간이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최대 3kWh의 전력 출력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세련된 디자인과 음성안내 및 충전진행 내용표시, 과열, 과부하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며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비상시 혹은 언제 어디서나 충전을 할 수 있게 하여, 장거리 운전시 배터리 방전에 따른 운전자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전기차소유자들의 필수품목이다.

ChargeREX-홈 충전기는 비과금용으로 7KWh급의 출력을 제공하며 충전전력, 전압, 전류, 충전시간 등을 표시하고 음성안내에 따라 충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용자 편의 기능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단독주택, 펜션, 공장 및 농가 등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ChargeREX-과금형 충전기는 7KWh급의 출력을 제공하는 공용충전기이며 OCPP1.6인증을 취득한 표준형 충전기이다. 5인치 컬러 LCD를 이용해 충전에 대한 각종 편의 정보들을 충전기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기능을 제공함은 물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충전진행 상황들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비과금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RFID카드에 의한 충전 및 충전종료 기능도 제공한다.



[전기차 충전기 3종, 사진제공=모트렉스]

☐ 자료문의 : 모트렉스 권순범 과장 (070-4892-6061)

IR큐더스 황호연 매니저 (070-5068-6363)